



6주차

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

김 아 람



6주차 | 학습목표

- 1960~70년대 정권에 의한 강제 동원과 간첩 조작 사례를 이해하여
구술사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.



6주차 | 학습목차

학습목차	<p>01. '개척단' 조직과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랑인 단속과 '개척단' 동원 개간, 간척 노동 감시와 구타 	<p>04.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산 개척단의 해산 장흥의 농지 분배 후 떠난 사람들 정착한 사람들과 현재
학습목표	<p>02. '개척단'의 합동 결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합동 결혼 추진 실제 결혼 생활과 그 이후 구술 일화 	<p>05. 납북귀환 여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납북귀환 여부란? 사건의 배경 연행 강제 심문 불법 구금, 고문 및 구타
학습내용	<p>03. '개척단'의 농지 분배와 이주/정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농지조성 현황 장흥과 서산의 농지 분배 차이 서산 정착민의 요구와 정부의 책임 	<p>06. 납북귀환 여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'연좌제'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감시로 인한 일상의 파괴 지역에서의 고립 연좌제로 인한 자녀, 친척의 취업 및 해외이주 제한 가장(家長)의 피해와 그로 인한 빈곤 최근의 상황



6주차 |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

1차시 '개척단' 조직과 운영

6주차 | 학습목표 1차시. '개척단' 조직과 운영



학습목차

- 학습목표**
- 개척단이 조직된 시대적 배경과 운영 실태를 설명할 수 있다.
 - 개척단 피해자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.

- 학습내용**
- 5.16쿠데타 전후 개척단 형성 배경
 - 2017년부터 널리 알려진 피해자들의 경험

부랑인 단속과 '개척단' 동원

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1차시 '개척단' 조직과 운영



부랑인 단속과 '개척단' 동원

- '혁명공약'
 - 5.16쿠데타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내세움
 - 제3조: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(舊惡)을 일소(一掃)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 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.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1차시 '개척단' 조직과 운영



부랑인 단속과 '개척단' 동원

- '부패'와 '구악'이란?
 - 관료의 비리나 부정부패
 - 거리의 부랑인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1차시 '개척단' 조직과 운영



부랑인 단속과 '개척단' 동원

- 부랑인 단속 후
 - 군대
 - 연고지
 - 개척단 = 자활정착사업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1차시 '개척단' 조직과 운영



부랑인 단속과 '개척단' 동원

- 자활정착사업
 - 농촌에 보내 개간, 간척을 하게 한 후 정착시킨다는 목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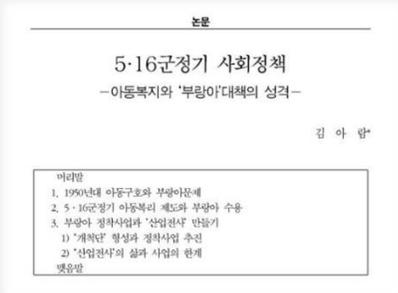
서산청소년개척단

[출처01] 국가기록원 [출처02] 국가기록원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1차시 '개척단' 조직과 운영



부랑인 단속과 '개척단' 동원



개척단에 대한 논문

[출처03] 역사와 현실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1차시 '개척단' 조직과 운영



부랑인 단속과 '개척단' 동원

- 5.16 군사정부 “부랑인들이 새 삶을 살게 되었다”
 - “좋은 성과를 거둔 사업”
 - 그러나...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1차시 '개척단' 조직과 운영



부랑인 단속과 '개척단' 동원

■ 잡혀올 때의 상황

“그때는 순경들이 젊은 사람들만 보는 잡어갔어요.
잡혀가던 날 기억은 나죠. 차에다 줄줄 싣고 가버리니까.
어디로 간 영문을 모르고 차에 타고 갈 수밖에 없었죠.”

[출처04] 국사편찬위원회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1차시 '개척단' 조직과 운영



부랑인 단속과 '개척단' 동원

■ 잡혀올 때의 상황

“밤에 커튼 다 치고. 뭐 그 안에서 버스 안에서도 뭐 잡담을 한다든가
그런 거 없어. 죽어. 대갈뺨이 들었다 하면, 대가리 딱 앞에다 하고
있어야 돼. 갈 때까지 몇 시간을 말아야, 길이나 좋나, 들력거리는데.”

[출처04] 국사편찬위원회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1차시 '개척단' 조직과 운영



부랑인 단속과 '개척단' 동원

■ 전남 장흥군 도착

“우리가 어디로 가는지, 뭐 하러 가는지, 전혀 모르는 거여.
거기서 내리니까.” “여기는 대한청소년개척단이다. 여기는 영(傭) 외
는 아무것도 없다. 느그들은 아무 권리도 없다. 밥 먹을 권리도 없고,
오줌도 느그들 마음대로 못 싣다.” “그러니까, (살아보니) 맞더라고.”

[출처04] 국사편찬위원회

개간, 간척 노동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1차시 '개척단' 조직과 운영



개간, 간척 노동

- 강도 높은 노동

“우리는 단체에 있다 보니, 아침에 4시 한 40분에 기상 하려면 정확히 5시에 연병장에 모여야 됩니다. 그리 안하면 늦은 늦은 한쪽으로 자쳐났다[제쳐났다] 빠따로 벌을 받게끔 합니다.”

[출처04] 국사편찬위원회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1차시 '개척단' 조직과 운영



개간, 간척 노동

- 할당량 공동 작업

“맨날 밥만 먹으면 저 나가서 논 개척, 논 경지정리만 하는 거여. 그럼 중대별로 나가갖고 몇 중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, 몇 중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, 다 있어. 그러니까 그것도, 그 양을 못하면 날 새가면서라도 그 양을 해야 돼.”

[출처05] 국사편찬위원회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1차시 '개척단' 조직과 운영



개간, 간척 노동

- 군대식 운영

- 연병장 = 군대 운동장
- 소대, 중대, 대대 편제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1차시 '개척단' 조직과 운영



개간, 간척 노동

- 강제 노동 (난민정착사업과 다름)

- 한겨울 간척 작업

“저녁이 추운디 12시 넘을 때까지 하게 되면은 사람이 얼마나 견디겠어?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아주 땡땡 요러고 부어 버려요. 그렇게 죽는 사람도 좀 있었어요. 자주는 없지마는 등등[더러] 있었죠.”

[출처03] 국사편찬위원회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1차시 '개척단' 조직과 운영



개간, 간척 노동

■ 한겨울 간척 작업

그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노예 생활맨키로 얽매었기 때문에,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. 먹는 것도 인간으로서 먹지 못할 정도, 또 일을 하다가 뺨이 짝 벌어져버리는 수가 있어요.”

[출처03] 국사편찬위원회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1차시 '개척단' 조직과 운영



개간, 간척 노동

■ 사망 사고

삽으로 요렇게 일하다가 산이 탁 넘어오른 산에 묻혀버려요. 한 번에 한 20명 묻혀버렸는데, 내가 가(가장자리)에 묻힌 사람은 파내고,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사망되죠. 보통 서이(3) 너이(4) 사망이 되야 부리고.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과정이…”

[출처03] 국사편찬위원회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1차시 '개척단' 조직과 운영



개간, 간척 노동

■ 사망 사고

“중력에 의해서 짝 벌어져버리면 거기 사람이 끼어들어 가버리는 수가 있고. 또 산에서 갱이로 일을 하다가 구루마로 쪽 대고 일을 하면, 산더미 같은 흙이 넘어와 닥쳐갓고 고놈 파서 심그든요. 작은 곡괭이 갖고 등허리를 쪼아서 삽으로 고놈 한나 담으면, “출발!” 또 한나 담으면 “출발! 출발!”해서, 푸고 또 올라오고.

[출처03] 국사편찬위원회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1차시 '개척단' 조직과 운영



개간, 간척 노동

■ 서산 무연총

-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의 묘지



“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…” 모월리의 소망

[출처06] 2기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

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

감시와 구타

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1차시 '개척단' 조직과 운영

감시와 구타

- 도망 시도

“낮엔 못 도망가니까. 밤에도 비가 안 오면, 뺨에 걸어가면 뽕뽕 소리가 납니다. 소리가 나면 잤히니까. 비가 오고 매서우면 소리가 몰라 불죠. 보통 5-6명, 7-8명이서 자기끼리 모여서 내뺨부러요. 비가 오니까 오늘 저녁에 약속해서 결국 탈출 내뺨불고. 광주다 그러면은 광주 사람들끼리 얘기가 되고 그러죠.”

[출처03] 국사편찬위원회

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1차시 '개척단' 조직과 운영

감시와 구타

- 상호 감시

“‘구호반’이라고 인간 철조망이라고 보초서는 거여. 그걸 내가 보초를 서게 된 거여. 구호반에 뽑힌 거여. 거기 즉 말하자면 경비들이지. 그걸 하는데, 부산서 온 우리 동지들이 내 초소로 나온 거여, 도망갈라고. 6명이 한 번에 나왔는데, 내 초소로 나왔는데, 자, 가다가 걸리면 지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야 뒤여. 그래서 같이 될까? 같이 튀면 내가 없으니까 대번에 금방 사이렌 울려서 잡으러 나올 테고.”

[출처04] 국사편찬위원회

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1차시 '개척단' 조직과 운영

감시와 구타

- 도망 실패 시 구타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1차시 '개척단' 조직과 운영



학습정리

- 5.16 군정기에 만들어진 개척단이 어떻게 운영되었는가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1차시 '개척단' 조직과 운영



다음 차시에서는

- 개척단에서 벌어진 또 다른 일들 그리고 개척단이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

SOURCES



[출처01] 국가기록원
<http://theme.archives.go.kr/viewer/common/archWebViewer.do?bsid=200200066580&dsid=000000000003&gubun=search>

[출처02] 국가기록원
<http://theme.archives.go.kr/viewer/common/archWebViewer.do?bsid=200200066580&dsid=000000000004&gubun=search>

[출처03] 김아람, <5.16군정기 사회정책>, <<역사와 현실>> 82, 한국역사연구회, 2011

[출처04] 국사편찬위원회 - 2013년도 수집 구술자료
 1960년대 정착사업자의 현실과 경험 - 전남 장흥 개척단과 현자인 COH010_07_00A0001

[출처05] 국사편찬위원회 - 2012년도 수집 구술자료
 한국 근현대 가족경험과 가족의 위치(부분공개) COH009_06_00A0007

[출처06] 2기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
http://www.jinsil.go.kr/fnt/bbm/cnm/selectBbsSmpleDetail.do?bbsid=BBSMSTR_000000000501&nttid=314466



기획·조정
이봉규·정다영

교안
이유정·윤승희

영상
김록현